

2019. 11.
Vol.47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NEET)¹⁾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배상률 연구위원

개요

- 조사목적** ▶ 청년 고용만이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청년들의 일과 삶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①인구와 가족, ②교육과 훈련, ③경제와 고용, ④주거, ⑤건강, ⑥문화와 가치관, ⑦관계와 참여의 총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부가조사 형태로 참여해 분석 대상인 청년 니트(NEET)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5세~만 39세의 일반국민
- ▶ 전체 3,133명, 남자 1,613명(52.6%), 여자 1,520명(47.4%), 만 15~18세 503명(14.2%), 만 19~29세 1,199명(38.8%), 만 30~39세 1,431명(47.0%)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8년 7월~8월

1) 본 통계 브리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도 연구과제인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NEET)' 보고서의 일부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여기에서 제시한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결과는 별도 작업으로 추가한 것이며 제11차 청년정책포럼(청년 니트 현황과 정책방안, 2019년 12월 5일, 15:00~17:00, LW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 바 있음.

1 청년 니트(NEET)에 대한 정의 및 규모 추정

■ 청년 니트(NEET)에 대한 정의

- 청년 니트(NEET)는 “학업도, 일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NEET)를 지칭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된 청년정책 대상으로 부상함.
- OECD에서는 훈련의 경우 중등 후 비 고등교육(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에 포함되는 기관에 다니는 경우만 청년 니트 범주에서 제외시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공공직업훈련의 경우에도 공식 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어도 청년 니트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를 15세에서 29세로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에 통학하는 경우도 제외해 니트를 정의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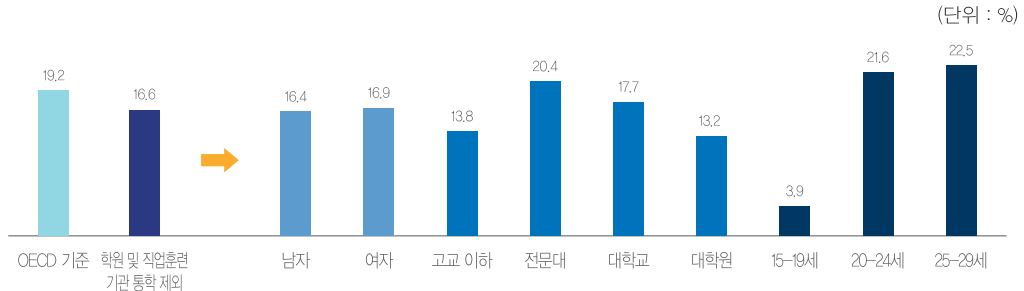
표 1 청년 니트(NEET)에 대한 정의 비교와 본 연구의 정의

구분	본 연구	영국(1999)	일본(2004)	EU(2012)	OECD(2014)
연령	15-29세	16-18세	15-34세	15-29세	15-29세
실업자	포함	포함	제외	포함	포함
기혼자	포함	포함	제외	포함	포함
가사	포함	포함	제외	포함	포함
공식교육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공식훈련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비공식훈련	제외	제외	포함	포함	포함

출처: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2018), <표 II-4>, p.26.

■ 공식적인 청년 니트(NEET)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2018년 청년 니트의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15세에서 29세 청년 중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은 16.6%로 나타났음. OECD기준으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인 경우도 니트로 볼 경우 청년 니트비율은 19.2%였음.
- 청년 니트 중에서 남성(16.4%)보다는 여성(16.9%)이 약간 더 니트비율이 높았음. 교육수준별로 보면 전문대가 20.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학교가 17.7%로 높게 나타남. 이는 고교 이하 니트비율이 높은 다른 국가들과 다른 결과임. 연령별로는 학생 비중이 높아 15-19세의 니트 비율이 매우 낮은 대신 20대 이후 니트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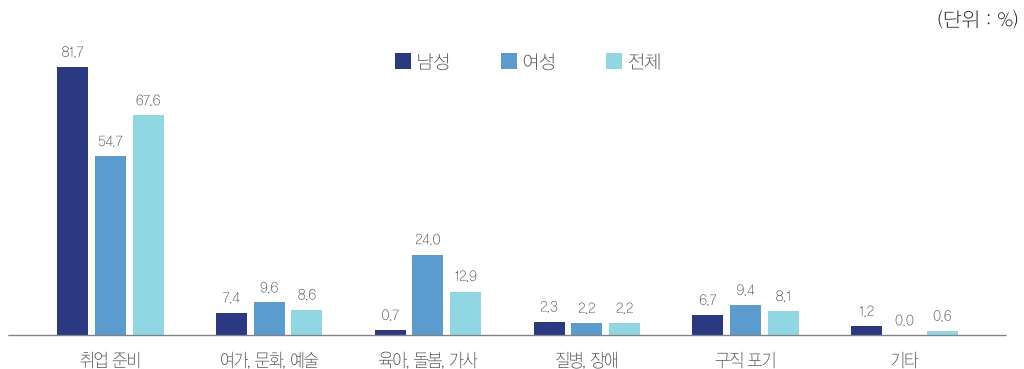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임.

그림 1 2018년 청년 니트(NEET) 정의별 추정 규모 및 특성

2 청년 니트(NEET)의 유형

■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 청년 니트(NEET) 중 취업준비가 67.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육아·돌봄·가사(12.9%), 여가·문화·예술(8.6%), 구직포기(8.1%) 순으로 나타남.

- 이 조사에 청년 니트(NEET)에 관한 유형은 유럽연합(EU)의 유형 구분을 참조해 지난주에 주로 한 활동에 대해 ①취업준비(구직활동 포함), ②여가·문화·예술 활동, ③육아·돌봄·가사 활동, ④질병 및 장애로 인한 경우, ⑤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 그냥 쉬었거나 구직활동이나 훈련을 받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쉬는 경우(구직포기)로 구분하였음.
- 조사 결과, 취업준비가 67.6%로 가장 높았고 남성의 비율(81.7%)이 여성(54.7%)보다 높게 나타남. 육아·돌봄·가사 활동은 두 번째로 높았는데 여성비율(24.0%)이 남성(0.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이어서 여가·문화·예술 활동과 구직포기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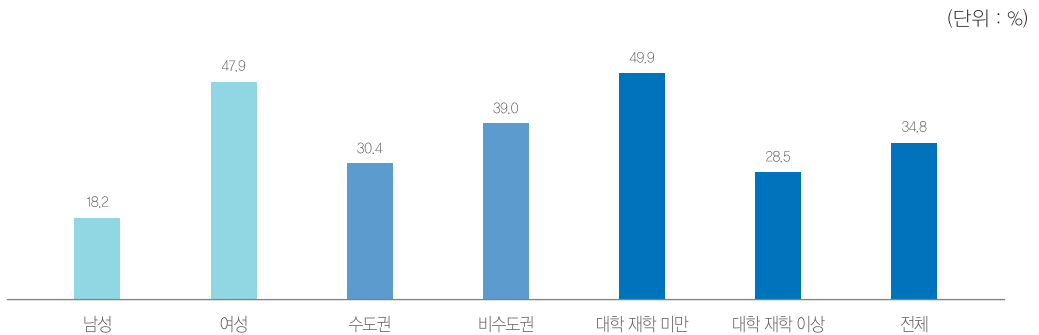
출처: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2018), <표 III-10>, p.59.

그림 2 2018년 청년 니트(NEET) 유형별 비중 및 성별비교

3 청년 니트(NEET) 상태 기간

■ 청년 니트 중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니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 니트에게 니트 상태 기간을 물어본 결과, 1개월 미만은 7.3%였고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7.9%,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34.8%로 나타남. 한국은 장기실업 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한 곳인데 비해 장기 니트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남.
- 장기 니트 비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았고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수도권에 비해, 대학 재학 미만인 경우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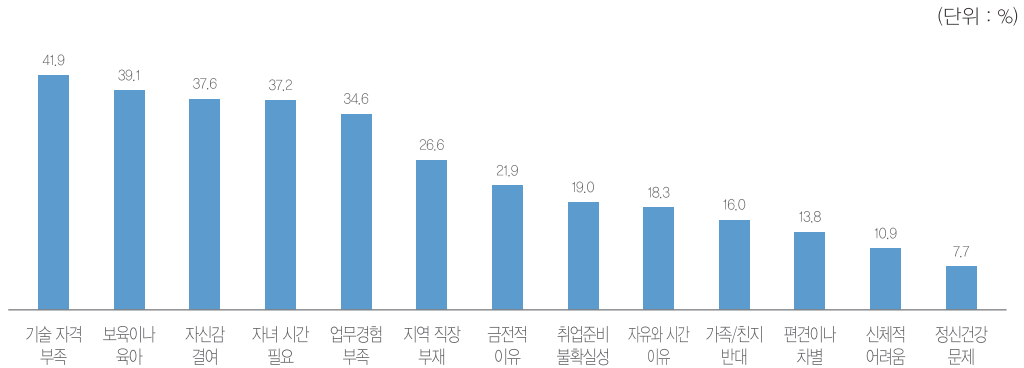
출처: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2018), <표 III-11>, p.60.

그림 3 2018년 청년 니트(NEET) 중 1년 이상자 비중

4 청년 니트(NEET)의 미취업 이유

■ 청년 니트에게 미취업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았고 자신감 결여도 37.6%로 높았음.

- 청년 니트에게 미취업 이유를 물어본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자격이 부족해서라는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이 41.9%로 높았고 이어서 보육이나 육아 때문이라는 응답이 39.1%, 자신감 결여라는 응답이 37.6%로 나타남.
- 기술이나 자격 부족은 니트 유형 중에서 취업준비형(49.7%)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고 보육이나 육아 때문이라는 응답은 육아·돌봄·가사형(94.2%)이 높게 나타남. 자신감 결여는 육아·돌봄·가사형(48.2%)과 질병·장애형(48.1%)에서 높게 나타남.



출처: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2018), <표 III-13>, pp.6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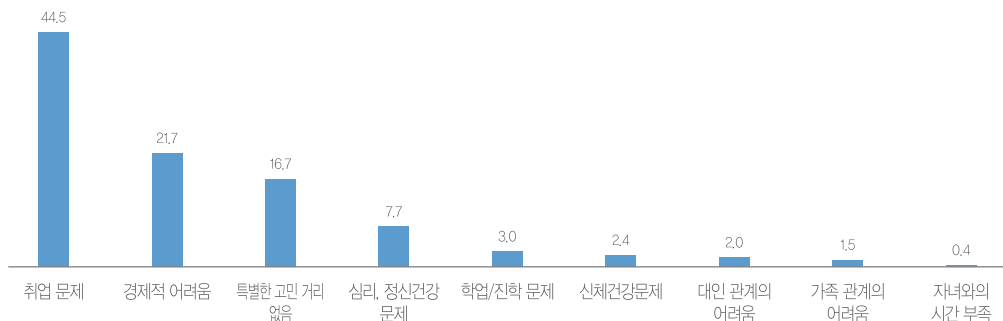
그림 4 2018년 청년 니트(NEET)의 미취업 이유(그렇다+매우 그렇다, 복수응답)

5 청년 니트(NEET)의 고민거리

■ 청년 니트에게 주된 고민거리를 물어본 결과, 취업 문제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 정신 건강 문제가 높게 나타남.

- 청년 니트에게 주된 고민거리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취업문제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21.7%였으며 특별한 고민거리가 없다는 응답도 16.7%였음.
- 청년 건강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가 고민이라는 응답이 7.7%로 네 번째 고민거리로 나타났고 신체건강 문제도 2.4%로 여섯 번째 고민거리로 나타남.

(단위 : %)



출처: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2018), <표 III-14>,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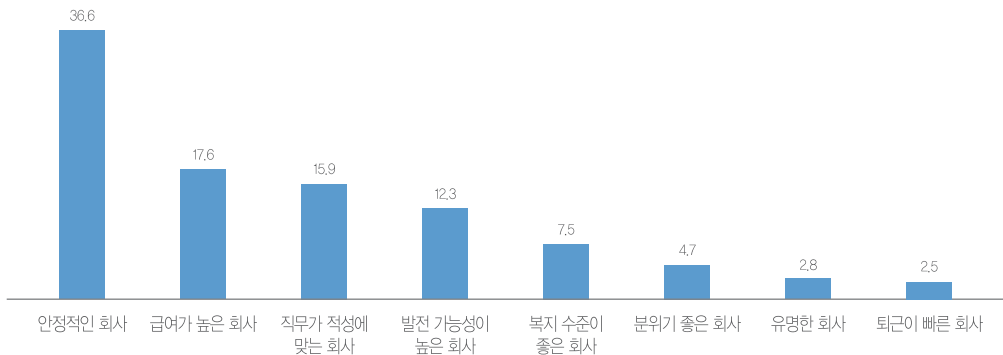
그림 5 2018년 청년 니트(NEET)의 주된 고민거리

6 청년 니트(NEET)가 선호하는 일자리

■ 청년 니트에게 어떤 일자리를 가장 선호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안정적인 회사라는 응답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한 질문에 청년 니트들 중 36.6%가 안정적인 회사를 뽑았고 이어서 급여가 높은 회사(17.6%),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15.9%) 순으로 나타남.
- 청년 니트와 니트가 아닌 일반 청년을 비교해 본 결과, 안정적인 회사라는 응답은 36.6%대 28.3%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줌. 반면 급여가 높은 회사라는 응답은 일반 청년이 21.5%로 니트 청년(17.6%)보다 높게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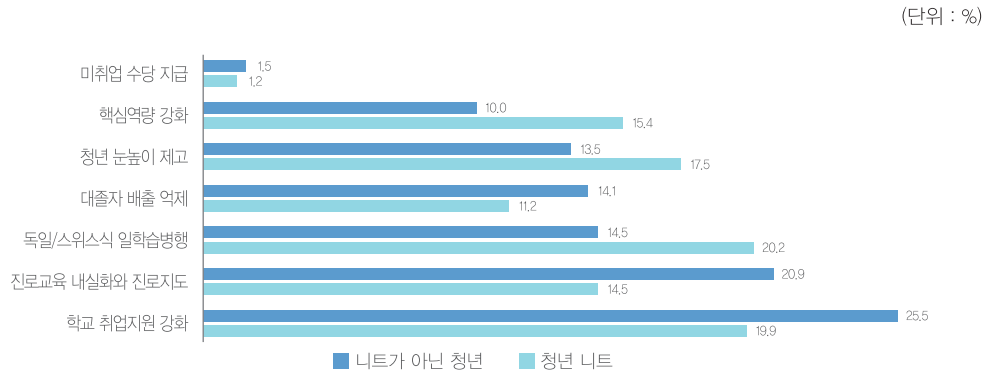
출처: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2018), <표 III-14>, p.66.

그림 6 2018년 청년 니트(NEET)가 선호하는 일자리

7 청년 니트(NEET)가 선호하는 노동공급정책

■ 청년 니트에게 어떤 노동공급정책을 원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학습병행제가 2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선호하는 노동공급정책에 대한 질문에 청년 니트들 중 20.2%가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학습병행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서 학교 취업지원 강화(19.9%), 청년 눈높이 제고(17.5%) 순으로 나타남.
- 청년 니트와 니트가 아닌 일반 청년을 비교해 본 결과, 학교 취업지원 강화라는 응답이 청년 니트는 19.9%인데 반해 니트가 아닌 일반 청년은 25.3%로 큰 차이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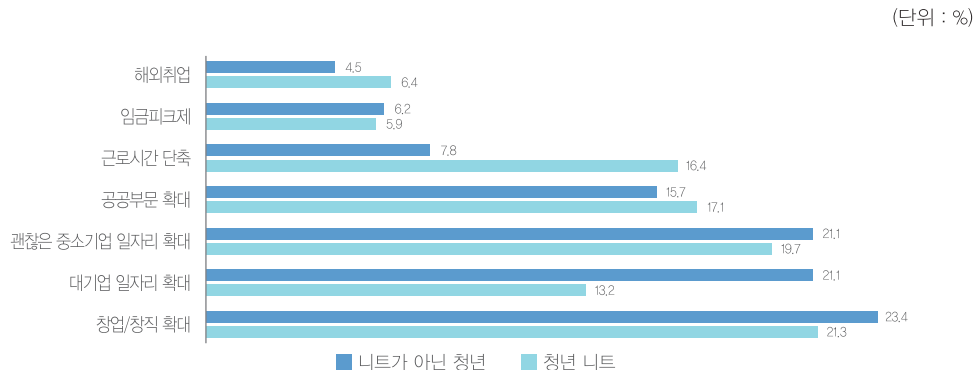
출처: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2018), <그림 III -17>, p.72.

그림 7 2018년 청년 니트(NEET)가 선호하는 노동공급정책

8 청년 니트(NEET)가 선호하는 노동수요정책

■ 청년 니트에게 어떤 노동수요정책을 원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창업이나 창직 확대가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선호하는 노동수요정책에 대한 질문에 청년 니트들 중 21.3%가 창업이나 창직 확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서 관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19.7%),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17.1%) 순으로 나타남.
- 청년 니트와 니트가 아닌 일반 청년을 비교해 본 결과, 대기업 일자리 확대라는 응답이 청년 니트는 13.2%인데 반해 니트가 아닌 일반 청년은 21.1%로 큰 차이를 보여줌.



출처: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2018), <그림 III -18>, p.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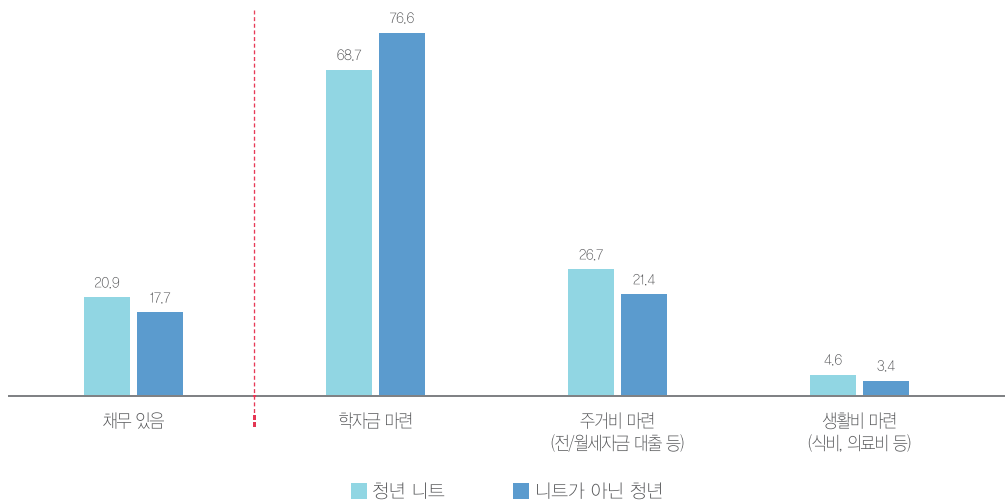
그림 8 2018년 청년 니트(NEET)가 선호하는 노동수요정책

9 청년 니트(NEET)의 채무 여부와 채무발생 이유

■ 청년 니트 중에서 채무가 있는 경우는 20.9%였고 채무 사유 중 학자금 마련이 68.7%로 가장 높았음.

- 청년 니트 중에서 채무가 있는지를 질문해본 결과, 응답자 중 20.9%가 채무가 있다고 말함. 니트가 아닌 일반 청년의 경우 채무가 있다는 응답은 17.7%로 청년 니트의 채무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채무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학자금 마련이 68.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주거비 마련이 26.7%로 나타남. 니트가 아닌 일반 청년과 비교해 주거비 마련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단위 : %)



출처: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2018), <그림 III-15>, p.70.

그림 9 2018년 청년 니트(NEET) 채무 여부 및 채무발생 이유